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2012. 3. 10 (토) 11:00 ~ 16:00

장소 | 서울광장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여성가족부 MBC SBS KBS EBS YTN CBS 한겨레 YWCA 여성신문사 ChanyNews POCSSan afreeca and others

협찬 유한킴벌리 Pulmuone AMOREPACIFIC kt KYOBO KTA and others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bunbun@38womensday 38women.co.kr



참가물은 빼고 나트륨은 줄인 올바른 핫도그



기름에 튀기지 않아 칼로리가 낮은 라면 자연은 맛있다



과일 외에는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아이мли얼



이 세상 누구와도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것, 풀무원이 생각하는 바른먹거리입니다

과일 외에는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아이мли얼"
참가물은 빼고 나트륨은 줄인 "올바른 핫도그"
기름에 튀기지 않아 칼로리가 낮은 "자연은 맛있다"

풀무원 바른먹거리는, 이 세상 누구와도 안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먹거리 하나하나의 영양균형을 바르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Nutrition Balance

Nutrition Balance



IOPE 스킨리포트



이제, 나이에 지지 않아요 진화된 레티놀이 5가지 주름을 관리하니까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 되다

☒ 깊은 주름 ☒ 표정 주름 ☒ 모공 주름 ☒ 미세 주름 ☒ 속 주름

IOPE



NEW

후생개선기능성인용

레티놀 에이지 코렉터

IOPE



ARITAUM
www.aritaum.com

☎02-558-0101 (내선) ☎02-558-0102 (외선) ☎02-558-0103 (팩스) ☎02-558-0104 (이메일) www.iope.co.kr

☒ Wrinkle Care ☐ Whitening ☐ Lifting ☐ Anti-Ageing ☐ Pore Care ☐ Trouble Care ☐ Sun Care ☐ Hydrating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새로운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 함께 행동할 때 바뀌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정치인이 많아져야 정치가 투명해지고 신선해지고 문화가 바뀝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 집니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장시키고자 지역구 여성공천 15%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여성의 참여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2012년은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역사적 갈림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한 시대, 그것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그 동안 기울여 온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여성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권미혁 상임대표님과 김경희, 김금옥 공동대표님,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2012년 3월 8일은 1908년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지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여성들과 함께 10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104년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오늘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와 그리 다르지 않음에 한 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들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온 역사 또한 깊은 자부심으로 소중히 기억합니다.
올 해는 총, 대선이 치뤄지는 해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8회 기념대회를 열어 성평등 사회, 평화로운 세상, 99%의 행복을 약속하는 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1% 특권에서 소외된 99% 여성들은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서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 유연화 속에서 양산된 비정규직의 50% 이상이 여성이며, 여성취업자 중 6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여성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 가정양립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담당자로서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영역에서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정치인 육성과 진출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이중, 삼중의 고통과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99%에 대한 차별과 소외 속에서 또 다시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이 스스로의 힘을 모으고 연대와 나눔을 약속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의지와 실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8회 한국여성대회를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오늘의 약속인 성평등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 99%의 행복을 이루겠다는 약속에 통합진보당도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여권(女權)은 인권(人權)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먼저, 104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1908년 3월 8일, 전 세계의 여성들은 평등을 향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 역군이었던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이라는 '빵'과,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장미'를 들고 여성의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들의 '빵'과 '장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근간인 정치, 경제 분야의 여성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 권한척도(GEM)에서는 109개 나라 중 61위!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7명도 여성입니다. 고된 삶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이렇게 외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허하라!"

여권(女權)은 인권(人權)입니다.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보장된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의 굴레가 덧씌워진다면, 우리 사회 모두의 손실입니다. 우리 사회 인재의 반을 이용하지 못 하니, 그만큼 우리 경제는 힘을 잃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니 그만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질은 떨어집니다. 여성들의 지혜와 힘, 부드러움과 창의성은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저는 요즘 결제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 제일 앞 장에, '성주류화 관점의 고려'가 표시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의 여성 정책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사랑하는 서울, 여성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웃으면, 남성도 웃습니다. 서울시도 웃습니다. 여성들이 활짝 웃는 날을 꿈꾸며,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도 활짝 핀 장미 한 송이를 선사합니다.

올 해로 104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증



남부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제28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대표하여 제28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의 인권 향상과 성평등한 세상을 일구기 위해 헌신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소속 단체들,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끌어오신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여성대회는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의 여성인권운동의 부단한 역사적 유산 위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성운동은 그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면서 현 시기 우리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도 용기있게 대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 존중하고 우애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성스러운 도정에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가슴으로부터 연대하고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세계와 삶의 온전한 주체로 서도록 하는 운동과 더불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무장하여 생명과 평화와 비폭력의 세계를 향해 뚝뚝뚝 큰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운동으로부터 신선하고 창조적인 도전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방송인 ·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

오늘 우리 여럿의 한결음이 모여 길이 될 겁니다.

안녕하셨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오늘은, 1908년 3월 8일에 미국의 한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여성의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1908년, 참 오래전인데요, 이 때 미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버텨가며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했구요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싸웠고, 하나하나 바꿔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은 점차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 즉 여성의 참정권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된거죠, 당시의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였다죠. 무, 권, 리, 에서 '무' 자 하나 떼고 '권리' 만 남기기 위해 저 여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남들.. 국가를 뛰어 넘어, 남들이 참 고맙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두 가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여성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걸까요?

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바깥세상에 무관심 하지는 않으셨나요? 저 역시 예전에는 나 하나의 힘으로 무엇이 바뀌겠어?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여성활동가들이 우리 여성들과 함께 세상에 외침으로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강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하하하!!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럿의 한결음이 모여 길이 될 겁니다. 그 길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도 심고, 예쁜 들꽃도 심어 보자구요. 여성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여성들이여! 광장을 열고, 희망을 노래하라!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동토의 땅에서 움트는 씨앗들처럼 한 겨울을 이겨낸 에너지를 모아 기지개를 펴는 날입니다. 살기가 비겁다는 말이 흔하게 들려옵니다. 100여년전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며 빵과 장미를 들었던 여성들의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성인권 3법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법·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는 아직도 큼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견디는 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어깨를 도닥여주는, 소통과 연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려는 친절한 마음,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여성들은 민주주의의 복원,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 사회개혁 과제들과 똑같은 무게로 '성평등가치의 실현'을 요구합니다. 지배·억압·차별로 왜곡되고, 상처받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장에서 '성평등' 실현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류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선언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지역사회의 절반을 차지한 여성이 처한 차별과 폭력의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지켜지기를 요구합니다.

"99%의 행복을 약속해!"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고조, 과도한 소비 집착, 환경 격차에서 오는 건강 불평등의 심화, 자연·사회적 자원의 독점과 착취, 불공평한 분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많은 이들의 삶에서 웃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반값등록금 실현, 사회안전망 확보, 돌봄의 공공화, 일·생활 양립을 이루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99%의 행복을 약속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물꼬를 바꾸고,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여성들이 광장을 열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가 내다볼 희망을 스스로 노래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자원이자 동력인 여성들의 유연하지만 강한 힘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별과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발전과 변화의 적극적 주체이자 참여자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광장에서 소리높여 부르는 희망가는 여성과 남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 모두가 하나되어 내딛는 평등·평화의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00여년 전 여성들의 합성이 우리의 희망가에 되살아나도록 목청껏 소리치고, 소중한 연대의 한걸음을 힘차게 내딛 더 봅시다. 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가는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미혜, 김경희, 김금옥



세계여성의 날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한다.

1909	1910	1911	1922	
미국 연하판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들 계기로 창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2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여성의 날 유래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1946~47	1948	1985	1987~	2012
한국에서는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이 3월 1일부터 8일까지를 부녀해방투쟁 기념주간으로 설정,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역이 끊어진다	3월 8일에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평우회, 여성외전화 등 14개 여성단체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된 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2011년까지 제27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2012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는 '2012 약속해!'라는 주제로 전국 319개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위원회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시민난장 '2012약속장터' (11:00-16:00)

1. 장소 : 서울광장

2. 내용

- 안내센터 : 자료집 및 기념품 배포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 만들기 : 3.8여성대회 복장 꾸밈을 위한 만들기 부스
- 포토존 : '2012 약속해' 인증샷 찍기
-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시민난장

기념식 (13:00-14:00)

사회 : 권태효(배우, 여성연합 홍보대사), 김금옥(여성연합 공동대표)

1. 장소 : 서울광장

2. 내용

- 개막 퍼포먼스 : '우리가 만들어요' 율동
- 대회사 :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축사 : 남부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 참가단체 소개
- 축하공연 : 이한철 밴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선언과 퍼포먼스 '2012 약속해'

거리퍼레이드, 마무리행사 (14:00-16:00)

사회 :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임원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1. 퍼레이드

- 1) 이동경로 : 서울광장 → 대한문 → 삼성본관 → 상공회의소 → YTN → 서울역광장
- 2) 내용 : 각계각층의 자기요구를 드러낸 다양한 그룹, 풍물패, 복색한 참가자로 구성된 행진과 거점별 퍼포먼스 진행

2. 마무리 행사

1) 장소 : 서울역 광장

2) 내용

- 오프닝 축하공연 : 율동
- 참여발언
- 전체 댄스퍼포먼스 'Dancing Queen'
- 폐회

2013년 희망을 위해 성평등 사회, 평화로운 세상, 99%의 행복 약속 합니다.

Occupy Seoul, 한미FTA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하는 촛불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반값등록금시위에서, 24시간 불 밝힌 마트 계산대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희망의 촛불을 품고 변화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무감각하고, 1%가 시장을 독점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평화가 위협 받아 정의와 평등이 평행되고 있지만 성평등이 실현된 민주, 복지, 평화, 통일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3.8 세계여성의 날' 을 맞아 변화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 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을 '약속' 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19대 국회의원과 18대 대통령 선출을 '약속' 합니다.

약속 1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성평등사회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상의 키워드입니다. 차별과 억압을 폐지하고 인권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는 낡은 체제를 전환시킬 핵심가치입니다.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평등, 생존권, 돌봄, 일과 생활 균형, 소수자인권, 평화 등의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남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싸워온 '3.8 세계여성의 날' 의 100년이 넘게 이어온 위지는 오늘의 약속과 잘 부합합니다. 단지, 성별, 계급, 계층, 신체, 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약속' 합니다.

약속 2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 학교폭력 등이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는 협상이나 저울질 대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해결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의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 합니다.

약속 3

99%의 행복을 약속해

'개천에서 용난다' 는 말은 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빈곤층이 되면 탈출할 길은 막히고 일자리에서, 주거하던 비닐하우스에서 내몰려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새 99%에 이릅니다. 1%가 99%의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를 보장받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보장할 복지사회 실현과 99%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합니다.

성평등 사회, 평화로운 세상, 99%의 행복이 실현되는 공동체는 모두가 원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2012년, 우리 여성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여성들이 희망하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012년 적극적 투표로 우리의 약속을 실현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8회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2012년 약속해 !! 우리의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1. 국가는 관청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배로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4.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라!
5.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를 도입하라!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라!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라!
9.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라!
10.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라!
11. 초·중·고교에 통합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라!
13.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확충하라!
14.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추가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라!
15. 이주민의 체류권 확보를 위해 한국인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를 비롯하여 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16.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라!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하라!
18.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 확보를 위해 여성공동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라!
1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농가경영협약에 정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라!
20.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2. 3. 10

제28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28th 한국여성대회 지역별 행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8회 경기여성한마당

- 일시: 2012년 3월 7일(수) 오후 6시
- 장소: 수원역
-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자주여성연대
- 프로그램
 - 기념식/문화공연/4,11총선에 임하는 여성의 입장 및 여성정책 4대 요구(안) 발표/선언문 낭독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남여성대회

- 일시: 2012년 3월 3일(토) 오후 12시
- 장소: 창원종합운동장 내 만남의 광장
- 주최: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사설협의회, 경남진보연합(준)
- 주관: 경남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난타 공연(다문화 이주여성)
 - 기념식: 여성역사/대회사/내빈소개/축사/문화행사노래 공연-가수 김진/발언/결의문 발표
 - 거리 퍼레이드
 - 참여 부스 프로그램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여성대회

- 일시: 2012년 3월 3일(토) 오후 1시
- 장소: 금남로
-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여성대회 기획위원회
-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사전행사: 물레쉬 뭉
 - 2012년 3월 8일(수): 2012년 총선 여성의제 전달식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9차 대구여성대회

- 일시: 2012년 3월 8일(목) 오후 5시
- 장소: 대구백화점 앞
- 주최: 대구여성회
- 슬로건: 2012 여성! 우리의 선택이 대구를 전복한다
- 프로그램
 - 사전행사/단체별 전체 부스
 - 거리행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전지역행사

-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전지역행사 기획단
- 슬로건: "2012 희망을 약속해! 실천하는, 변화하는 여성의 힘을 보여줘!"
- 일시: 3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대전시청 북문 앞
- 프로그램
 - 기념식
 - 거리 퍼레이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3회 부산여성대회

- 일시: 2012년 3월 8일(목) 오후 7시
- 장소: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 주최: 2012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3회 부산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주관: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일보 노동조합
- 슬로건: "2012 약속해~!"
-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 행복을 약속해!
- 프로그램
 - 사전홍보 캠페인(2월 29일, 3월 2일, 부산지역 5개 지역 동시): 홍보전단 및 홍보물 분 배부, 거리살론,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 기념식: 여는 공연(오색태극)/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1, 2 / 20대 유권자 투표독려 영상/공연1 / 발언1 / 사전 캠페인 결과 영상/공연2 / 발언2/윙동 나는 신임활동가다 /전체퍼포먼스/3.8여성 선언문 낭독

- 프로그램
 - 사전홍보 캠페인(2월 29일, 3월 2일, 부산지역 5개 지역 동시): 홍보전단 및 홍보물 분 배부, 거리살론,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 기념식: 여는 공연(오색태극)/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1, 2 / 20대 유권자 투표독려 영상/공연1 / 발언1 / 사전 캠페인 결과 영상/공연2 / 발언2/윙동 나는 신임활동가다 /전체퍼포먼스/3.8여성 선언문 낭독

3.8 세계여성의 날 전북여성대회

- 일시: 2012년 3월 8일(목) 오후 5시
- 장소: 중앙실업광장 전주중앙교회 앞
- 주최: 군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단체연합
- 슬로건: "2012 약속해~!"
-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 행복을 약속해!

- 프로그램
 - 사전캠페인
 - 분행사: 개막 퍼포먼스/대회사/참가 단체소개/축하인사/축하공연(CRYM 인디 밴드 공연)/3.8 메시지 전달:총선 관련한 분야별 약속해 요구,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발언/전체 퍼포먼스: 약속하기, 안아주기/Dancing Queen 댄스 공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7회 울산여성대회

- 일시: 2012년 3월 7일(수) 오후 3시
- 장소: 남구 롯데호텔 앞
-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7회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여성회, 울산YWCA, 민주노총울산지부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상담소사설협의회)
- 슬로건: "2012 약속해~!"
-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 행복을 약속해!
- 프로그램
 - 캠페인
 - 약속집회: 여는 공연(여름 풍물공연)/대회사/발언1/공연(파랑 노래공연)/발언2/선언문 낭독
 - 캠페인

104주년 세계여성의 날 맞이 충북행사

- 주최: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주YWCA여성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청주여성문화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슬로건: 충북여성, 희망을 말하다! 2012, ()를 약속해!

- 일시: 2012년 3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상당도서관
- 프로그램: 영화상영회 <레드마리아>

- 일시: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1시, 오후 3시, 5시 30분, 6시
- 장소: 충북도청 서문, 카톨릭청소년센터, 청주시내 철도길
- 프로그램: 2012년 충북여성 권리선언 기자회견/제16회 "여성의제 생산 토론회" 타운미팅/충북여성대회 기념식/충북여성, 희망을 말하다 여성의날 맞이 문화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나는 를 약속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기념하며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온라인기자단이 인터뷰 했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켜보아요!

인터뷰 1

김기원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재학) 3.8온라인기자단



저는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외교관** 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었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주로 선전하고 있는 외교분야에 진출해 당당하게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외교관이 되어 여성들의 본보기가 될 것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약속합니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0학번 김유정



아내를 더욱 사랑할 것 을 약속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 생겨난 날이니 만큼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의 날이란 여성들만의 날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남성들이 더욱 챙겨주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김동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으로서의 이름을 알릴 것** 을 약속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많은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대부분인 공대에서도 여성들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또한 당당히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최란



뒷모습마저도 당당한 여자가 되자 가 저의 좌우명입니다. 사람의 뒷모습이란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내면을 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외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여성이 되고자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가 평등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리더층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고 싶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이지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투표** 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있어서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참여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여주고 싶어 투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류호희

인터뷰 2

김남정(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재학) 3.8온라인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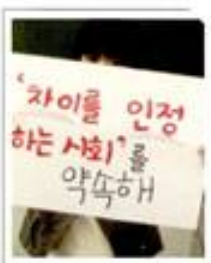


저는 **유리 없는 세상** 을 약속해요.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 과거와 비교해 더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고, 남성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 왔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부딪혀 승진 등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종 졸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리 없는 세상' 을 약속하고 싶어요. 22살의 심리학과,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아 현재 진보정치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며 특히 여성의 권리신장에 관심이 많아요. **신은희**

저는 **소통하는 사회** 를 약속해요. 요즘은 '소통', '공감'이 두 단어고 대세라고들 하죠. (웃음)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일에도 밑바탕에는 소통이 있어야 할 거예요. 무작정 서로의 의견, 생각도 모른 채 포용하라고 하면 그건 억지 부리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소통하는 사회'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소통하는 데에는 특별한 방식이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저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돼요. 사실 이게 말로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약속을 한만큼 저부터 실천해야죠. 인터넷미디어공학부에 재학 중, 눈웃음이 매력적인 남자. 자전거 여행을 좋아함. **백영민**



제가 약속할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예요. '차이'와 '차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차이'는 그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위를 기준으로 없이 같지만 않을 뿐 모두 동등해요. 그런데 그 차이점에 우위를 정해 나가는 다른 것들을 배척하려 한다면 그건 '차별'이 되겠지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엄연히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차별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를 약속하기로 했어요. 인터넷미디어공학부에 재학 중인 21살의 여대생. 사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 수집도 즐기는 그녀. **우영선**



온라인기자단의 인터뷰 전문과 사진은 여성연합 블로그 <http://38women.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3

이재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3.8온라인기자단

여성의 날을 맞아 나는 **관심을 가질 것** 을 약속해. 매년 이맘때쯤 참여학생회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구나. 부끄럽지만 그동안 '여성의 날'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아직 여성의 날의 취지와 기원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여성을 위한 날이어야겠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을 위한 날인만큼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해.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이모 군

여성의 날을 맞아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것** 을 약속해.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여자니까'라는 전제조건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 남자들이, 혹은 사회가 여성을 차별한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겠어.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김모 영

여성의 날을 맞아 나는 **감사할 것** 을 약속해. 여성 인권은 끊임없는 투쟁이 가져 온 결과라고 알고 있어.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던 시대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용기 있게 주장한 분들에게 이번 여성의 날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3학년 서모 영

여성의 날을 맞아 나는 **당당해질 것** 을 약속해. 나는 성격이 소심한 편이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지적하거나 불평하지 않거든. 하지만 만약 과거의 모든 여성들이 나 같은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는 여성 인권을 쟁다 구지 못했을 거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이제부터 나도 당당해질거야.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박모 영

그리고..

3.8 여성의 날을 맞아

"나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나는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해!"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해!"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나는 이번 학기 수업 전 출결하기를 약속해!"

"나는 남자친구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 것을 약속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라는 특수고용직으로 정의된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학습지 교사들은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는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지침으로 산재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임의 탈퇴 규정이 있어 사측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여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습지 교사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5대 학습지 기준으로 보면, 교사 수는 4~5만 명이며 여성교사의 비율이 90%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재능교육의 경우 회원이 회비를 연체 혹은 미납했을 경우 교사의 월급(수수료)에서 자동 충당(공제)되는 ‘자동충당제도’와 회원 수의 감소가 있을 경우 회원 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월별 정산(공제)하는 ‘월별정산제도’가 있어 학습지 교사들이 결국 가짜회원을 만들어서 부정영업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다른 학습지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능교육지부는 2007년 5월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임금이 삭감되는 ‘新수수료제도’를 도입한 임금협약이 갱신되어 조합원들이 회사에 임금 재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2007년 12월 노동조합이 혜화동 본사 옆에 농성 천막을 쳤고, 회사가 구사대를 동원해 이를 철거 하면서 2012년 3월 현재까지 1,540일째 농성을 지속해 오고 있다.



흔들림없이 장기투쟁을 이끌며 여성지도력 발휘

1999년 학습지 회사들 중에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한 재능교육지부의 노조원들 중에는 남성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성들이다. 특히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교육 학습지노조)의 지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은 여성들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노조는 특수고용직으로의 노동강도나 노동의 내용에 대한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항하여 5년 가까이 장기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리더십의 평등하고 포용적인 긍정적 특성을 살려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투쟁이 더욱 조직적이고 단결된 모습으로 다른 여타 투쟁에 귀감이 되고 있다.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비정규직이 여성 빈곤화의 상징이라면,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투쟁을 지속해온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는 여성 빈곤화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다. 또한 소통하는 투쟁방식을 통해 연대와 지지를 모아나가며 매주 빠짐 없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1인 시위, 희망산행, 희망두박이, 거리강연, 문화제, 촛불기도회, 집중기도회, 재능아웃댄스플래시몹 거리공연, 출근선전전, 1500인 서명전, 1500일 집중 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주도적으로 꾸려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 승리를 일궈내지는 못했지만 투쟁과정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여성빈곤 문제해결이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임을 사회적으로 확산 시키고 있다.

여성 억압에 대한 당당한 대응으로 여성주의 인식 확산

재능교육 노조가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래로 사측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 성희롱과 성적 모독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원들은 심각한 수치심과 우울증을 겪기도 했지만 굽히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여성인권 침해에도 당당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노조원들 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여성 리더십이 형성되고 성희롱 등 여성 억압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재능교육지부 주요이력

1999. 11. 7	노동조합설립
2000. 1	33일간의 총파업 참가농성 후 단체협약체결
2007. 12. 21	식감된 임금인 반대, 해고합법철회요구하며 본사 앞 농성투쟁 시작
2008. 10	농성조합원 급여, 통장 가압류
2008. 11. 1	노동조합의 농성투쟁을 이유로 단체협약 일방해지 노조전임자 2인 해고
2010. 3. ~	재능교육사측 용역강제고용 조합원 폭행, 성희롱, 미행, 감시 등
2010. 11.	조합원살상살이, 노조차량 사무기기 압류
2010. 12. 31	조합원 전원해고
2011. 1.	조합원부동산 압류, 조합원 신용불량자등재, 20억 손해소송
2011. 3. 25	유명자지부장 단식, 임원5인 석발투쟁
2012. 1. 13	해고자12명중故이지현조합원 임투병중 운명
2012. 1. 28	재능투쟁 1500일, 집중투쟁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결, 원직복직 투쟁에 승리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작은꽃' 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작은꽃' 님은 2010년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자로 부터 받은 지속적인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에 2011년 5월 31일부터 부당해고에 맞서 197일간의 상경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등 1년 6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첫 산업재해 판결을 받아냈으며, 마침내 2011년 12월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 투쟁은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위치에서는 성희롱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해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불법과전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시안으로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낸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2010년 12월, 홍익대는 청소·경비 용역 계약이 만료되자,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건비로 책정된 기존 용역비 단가를 강요하며 3개월만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용역업체가 입찰을 포기했고,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170여명의 청소·경비용역 노동자들은 연말에 계약해지 사태를 맞게 되었다. 해고된 140여 명의 청소 노동자들은 대학 측에 생존권 보장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11년 1월 3일부터 50여일간 홍익대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결국 '전원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시급 인상,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초과근무·시간외수당 지급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큰 개선을 이뤄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집단 계약해지에 저항하며 흔들림없이 진행된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트위터리안·날라리 외부세력 등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와 연대로 확장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에 대응하여 성폭력에 대한 학내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2011년 5월,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여학생위원회, 여성주의 교지 <석순>, 생활도서관 등이 <반성폭력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일회적 처벌만이 아니라, 성폭력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구성한 학생상벌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징계를 실시할 것과, 피해 여학생에게 자행된 의과대 내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방향을 갖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과 성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차 피해여성의 안정적인 학내 복귀를 위한 피해자 지지엽서 쓰기 등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의식변화를 위해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채 아직도 진행형이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

2011년 5월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1명을 일반계 고등학교 4개 학교의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진술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사법절차를 밟았으나, 대전지방법원은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아래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나상훈 판사는 특수강간 입에도 불구하고 16명의 가해자가 수능시험 응시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선고를 유예해 주었다. 또한 보호자에게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이라는 매우 낮은 수위의 판결을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묵인한 것으로서 성폭력 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드러난 포항남부경찰서

2010년 7월, 포항 대잠동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명의 여성들이 4일에 걸쳐 차례로 죽음을 선택했다. 2011년 3월, 또 한명의 여성이 자신의 역을함을 풀어달라며 목숨을 걸었다. 8번째의 자살이었다. 8개월동안 8명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지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찰과 검찰, 정부기관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초 사건당시부터 사건을 철저히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결국 2011년 3월, 포항지역의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성인권단체들이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성산업 착취구조에 대한 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포항 대잠동 일대 유흥업주들의 모임인 한마음회가 영업을 위해 답답하여 마담과 여성들에 대한 협박, 감금, 폭력 등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또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한마음회 소속 업주의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골프장까지 함께 다니는 등 이들의 불법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희룡 국회의원 비호한 김형오 전 의장과 제명안에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

2011년 8월, 성희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에게 대한 제명안이 1년을 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강용석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을 인용,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며 강 의원을 비호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당시 본회의에 출석한 재적의원 259명 중 그 누구도 김형오 의장의 발언에 이렇다 할 반박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134명의 국회의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134명의 명단을 알 수는 없지만, 국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징계제명안을 최종적으로 폐기한 18대 국회의원 134명은 국회의 윤리 자정력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침해를 묵인한 채,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가장 부끄러운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것이다.



Congratu
message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천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개혁’과 ‘99%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 당의 핵심정책인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단체와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한 명 숙

민주통합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

남 윤 인 순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발전과 여성들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

 광동제약(주)

“

성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함께 가는 길,
제28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열정이 아름다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제28회 한국여성대회를 응원합니다.

”

지 은 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주문을 약속해!”

투투플라워 02-2265-2020

“여성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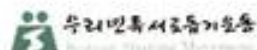
이화민주동우회

“차별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축제,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 최열

“3.8 세계여성의 날 축하합니다.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보장을 약속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인권을 응원해!”

법무법인 이안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 이상훈, 진선미

“여성들이 법과 사회생활에서도 주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차별과 폭력을 넘어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함께 갑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이석행



올해의 여성운동상 상금을 마련해주신 분들

“투쟁이 승리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를 바라며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석교수)
강인순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강전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
권미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숙경 (기독교여민회 총무)
김인숙 (법무법인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진영 (기독교여민회 재능교육대책위 집행위원)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노숙 (기독교여민회 지도위원)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은순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서민순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유복님 (다시함께센터 소장)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장정희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회전화 상임대표)
진선미 (법무법인 이안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명옥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인숙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
최재숙 (에코생협 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기념식 사회



권혜호
(배우, 여성연합 홍보대사)



김금옥
(여성연합 공동대표)

거리퍼레이드 사회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임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사무국장)

축하공연



이한철 밴드

풍물패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풍물패 함께누리

W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연출자문 : 유수훈(숨연터테인먼트 대표)

기획, 진행

여성연합 사무처 : 김미란 기획부장, 김수진 활동가, 김현아 부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배은혜 활동가, 오보람 활동가, 유일영 부장, 이구경숙 사무처장

기획·실행위원 : 김치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총무,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모후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문영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교육상담원, 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오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희정 한국여성장 애인연합 부장,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장

디자인·무대·음향 : 세터, 마당

ENG : 청춘

자원활동가 (총 106명)

강미영, 강민정, 권현진, 김가을, 김가혜, 김경령, 김기원, 김남정, 김단비, 김도희, 김보연, 김서영, 김석영, 김소현, 김인혜, 김자영, 김정서, 김주경, 김지선, 김지연, 김지은, 김현경, 김혜란, 김혜진, 김희려, 나문, 남하영, 노우은, 류고은, 류은경, 마인선, 맹상현, 박두리, 박지연, 박지영, 박지현, 박희문, 백승주, 백은지, 사세미, 손동연, 송은세, 신경미, 신나라, 신성희, 신슬이, 신한슬, 신혜민, 안지훈, 양은영, 엄지민, 오민철, 오재화, 오지윤, 유미화, 유혜선, 유희, 윤이나, 윤혜원, 이가람, 이다솜, 이동우, 이명주, 이보람, 이선아, 이세라, 이소영, 이수림, 이수지, 이연수, 이윤재, 이재선, 이정민, 이정윤, 이종원, 이지수,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현주, 이혜수, 이혜진, 임다혜, 임수아, 임유진, 임정혜, 임주연, 임혜영, 임혜민, 장선, 장영주, 장현정, 천유란, 천주연, 청다정, 조윤희, 조은주, 조혜정, 진선주, 최명순, 최예지, 최윤선, 최찬미, 한혜선, 한효영, 홍영희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릴수록 안전하고 쾌적한 길,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도로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막힘 없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 질 것이기 때문에...

빠른 길! 안전한 길! 쾌적한 길!
한국도로공사의 약속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새로운 것들은
구할 때는
재미없어!

젤프레스 팝컬러 에디션



젤라이너가 펜슬 속으로, 젤프레스

GELPRESSO

WATERPROOF PENCIL GEL LINER



효리의 젤프레스
팝컬러 에디션이
공급해?

팝아트 컬러로 색다르고 화려하게! 펜슬젤로 간편하고 자유롭게! 젤프레스로 봄을 제압하라
 < 붓질의 불편함을 개선한 새로운 펜슬젤라이너 > < 워터프루프 타입 > < 놀라운 발림성의 슬라이딩 텍스처 > < 편리한 오토펜슬 타입 >

Get It
BOX

뷰티 트렌드 딜리버리 서비스, 갯잇박스 

Get It BOX

Indulge yourself in



뷰티 트렌드, 이제 집에서 받아보자!

Get It & Try It with Get It Box

갯잇박스는 매월 최신 뷰티 트렌드와 함께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의 아이템을
선물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선 감각으로 뷰티 트렌드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보라빛 박스를 Get It 하세요!



www.getitbox.com
문의/소비자 고객센터: 1577-5180

*갯잇박스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와 함께합니다.

5,000만 馬力의 성장동력!

이제, 말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희망의 질주

자연이 더 깨끗해지는 녹색의 질주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행복의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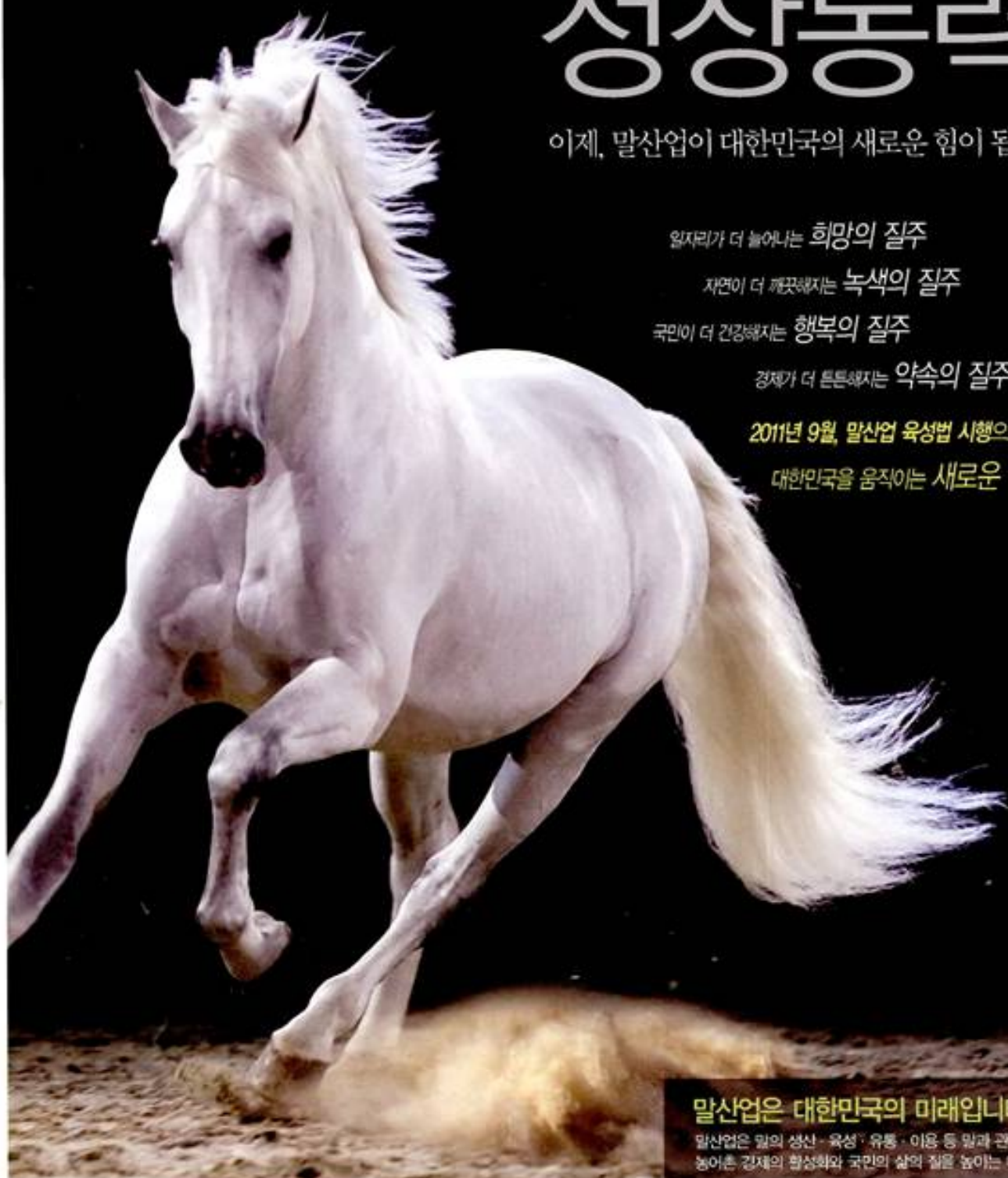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 약속의 질주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주가 시작됩니다

말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말산업은 말의 생산·육성·유통·이용 등 말과 관련된 국가 육성 사업으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평생 챙겨주는 친구처럼

언제나 나를 위해주던 친구처럼
잊고 계신 보험혜택 챙겨드리러
교보생명 재무설계사가
한 분 한 분 평생 찾아뵙겠습니다

평생 든든 서비스

- ▶ 보험혜택 잊고 계신지 아닌지 현재 고객님의 가입하신 보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 ▶ 놓친 보험금을 모르고 계시진 않은지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청구해 드립니다
 - ▶ 그 동안 달라진 변화는 없으신지 이자, 연호변경으로 달라진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 ▶ 부족한 보험은 없으신지 원하실 경우 현재 상품의 보장내역을 분석하고 부족한 보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평생 든든서비스로 찾아 뵈는 1인당 연간 주5회 전화상담을 제공합니다. 콜센터 : 1588-1001



KYOBOLIFE 교보생명

KIBIO Intense Intemporelle Oil

페이스오일의 새로운 발견,
클라란스 그룹의 유기농 스킨케어 KIBIO
미라클 유기농 오일에센스



카비오의 인텐스 오일은
CJ오쇼핑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CJ오쇼핑 (080-000-6000)

KIBIO
EXTREMELY ORGANIC FOR EXTREME BEAUTY



여기는 청학동, 우리는 IT하고 자라요!

IT로 한글을 배우고
IT로 영어를 말하고
IT로 웹을 검색하고
IT로 게임을 즐기고
IT로 사진을 찍고
IT로 메일을 보내고
IT로 친구도 사귀고
IT로 생각까지 깊어집니다

IT서포터즈가 찾아온 이후,
지리산 청학동 아이들은
더 스마트해졌고 더 스마일하게 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실제 olleh IT서포터즈의 IT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

여성이기 못하고 여성이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전국 23개 지역에서 IT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따뜻한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olleh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람들은 왜
창가에 화분을 놓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동백나무, 고무나무, 허브, 난초, 선인장...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아파트 베란다에, 사무실 책상 위에 우리는 화분을 키우고 가꿉니다
몸은 비록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숲과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